

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2017

성모기사

07



7월 봉헌기도



원죄 없으신 어머니 동정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저를 원하시니
언제나 제 자신의 모든 것을 어머니께 봉헌하며
오늘 이 봉헌을 새롭게 합니다.

오, 저의 여왕, 교회의 어머니시여!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어머니의 사명에 제가 충실히 협력하기를
오로지 당신께 청합니다.

오, 원죄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여!
오늘 제가 바치는 기도와 활동과 희생을 즐겨 받으시어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는 젊은 성소자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는 저희와
어머니의 도움을 외면하는 이들,
특별히 교회를 적대시하는 이들과
어머니께 맡겨진 모든 이들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성모님의 밤 / 향기로운 꽃다발	02
성 베네딕토와 성 프란치스코 구원모	04
프란치스코 성체 공경의 근본 사상 김성학	09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구세주의 어머니」(Redemptoris Mater) 권정대	12
콜베 신부의 기도와 사도직 최분기	18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실천 -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여정 - 이다한	23
언론(言論)의 의미에서 바라본 디지털 미디어와 가톨릭 신앙인으로서의 나 홍민용	26
말씀묵상 최창원	30
푸른 꿈 박영철	32
인도에서 수도 생활하기 -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 - 김민석	33
호주 멤버론에 가다 김육	43
베르나노스의 <우리들의 친구, 성인들> 정영란	47
함께하는 이모저모	55

"어둠속을 걸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이사 9:1]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요한 2:4]



그림 : 진동길 마리오 신부

성모님의 밤 / 향기로운 꽃다발



성모기사회는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5월 26일 금요일 ‘성모님의 밤’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성모기사회 본부를 양평에서 서울로 이전한 이후 처음맞는 성모성월이었습니다.



가톨릭교회가 5월을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는 ‘성모성월’로 정하고 봉헌하는 관습은 13세기 말 시작되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만발하는 5월을 축제의 달로 삼는 이방인들의 풍습을 보고, 다른 모든 여인보다 아름답고 다른 모든 창조물보다 뛰어난 성모 마리아님의 모습과 5월을 연관시킨 것입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성모성월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실로 ‘마리아 – 아훼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귀부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느님의 사랑을 가득 받는 최고의 결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모성월 신심의 핵심은 온 세상을 통하여 성모님께 명예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면서 성모님의 충실한 자녀로서 세상의 악과 싸우는 성모기사회원이 되겠다”고 봉헌 갱신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루카 1,48-49)



성 베네딕토와 성 프란치스코

구원모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 찬미예수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그분의 선하심이 곧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한국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관구의 동반자이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이탈리아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수도회 신학원 프로그램에 따라 여러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그 중 베네딕토회 수도원과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방문했을 때가 기억에 많이 납니다.

베네딕토회로는 수비아코의 사크로스페코와 스콜라스티카 수도원 그리고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방문했고, 프란치스코 수도회로는 아시시의 포르치운쿨라, 다미아노, 글라라, 프란치스코 대성당을 방문했습니다. 두 성인의 발자취를 간직한 수도회는 참 서로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베네딕토회는 산 중에 혹은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절이 위치한 곳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험준하면서도 웅장함이 엿보입니다. 세속과 온전히 분리되어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아코에는 성인께서 은둔하셨던 장소에 세워진 사크로스 페코 수도원과 성인의 쌍둥이 여동생의 이름을 딴 스콜라스티카 수도원이 있습니다. 마치 절의 암자와 같은 분위기랄까요. 수도원의 곳곳에 성화(프레스코)가 그려져 있어, 성인의 생애와 주님에 관해 묵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몬테카시노는 밖에서 보면 수도원이라기보다 거대한 요새와 같습니다. 그 당시 도적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수도원 안에 들어



가면 역시 대수도원이구나하는 느낌이 듭니다. 참으로 크고 웅장한 것이 마치 왕궁같은데, 로마의 4대 성전 외에는 이에 비길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도자들이 안 보였습니다. 관리자들이 곳곳에 있어 방문객들을 통제(?)해서인지 웅장하고 화려하나 박물관에 온 듯 활력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아시시 전역에 걸쳐 있습니다. 아니, 아시시 전역에 프란치스코 수도회 분위기입니다. 물론 오상의 비오 성인께서 계셨던 산 죠반니 로톤도처럼 열광적인 분위기는 아니지만 차분하면서도 열의가 느껴집니다. 대성당들도 크기는 하지만 그렇게 웅장한 느낌은 없습니다.



세상과 함께 하는
수도회라는 표현이 맞
을 것 같습니다. 대성
당과 수도회의 분위기
가 마을 전체에 이어
져있으면서도 괴리감
은 없습니다. 아시시

의 자연 경관은 한국 관구 신학원이 있는 강화도와 비슷했습니
다. 단지 절 대신에 수도원이 있고, 건축 양식과 사람들 생김새
가 다를 뿐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곳은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이었습니
다. 안에는 과거 성인과 동료들이 살았던 포르치운쿨라와 성인
이 돌아가신 곳, 굽비오의 늑대 일화를 기념하는 성인과 늑대
의 동상, 가시 없는 장미, 성인께서 비둘기를 구해주신 후부터
계속 그 장소에 있는 비둘기(죽으면 다른 비둘기가 다시 온다고 합니
다)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장소를 모아 그 위에 현재의 대성당
을 지은 것입니다.

성 다미아노 수도원에는 성인이 보수한 다미아노 성당과 글
라라 성녀와 자매들이 살았던 공간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글라
라 대성전에는 성인께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성 다미아노 십
자가와 글라라 성녀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로마 4대 성당이나 몬테카시노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성 프란

치스코 대성당은 컸습니다. 13세기에 이를 단 2년 만에 지었더니, 성인의 감화력이 어느 정도였기에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열성을 보였던 것일까요.

두 수도회를 비교하는 것 만크이나 프란치스코 성인과 베네딕토 성인의 죽음을 비교하는 것 역시 흥미롭습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내 어찌 주님께서 오시는데 누워서 있을 수 있겠는가?” 하시면서 두 제자들이 떠받쳐서 일어선 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알몸으로 흙바닥에 누워서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겸손을 드러내셨습니다. 귀족 출신인 베네딕토 성인과 평민인 프란치스코 성인… 환경의 차이일까요?



베네딕토회는 세속과 분리되어 있고 프란치스코회는 세속 안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이는 외적으로 드러난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는 두 수도회 창설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의 공통점입니다. 단지 자신의 특성과 시대상황에 따라 표출되는 모습이 다를 뿐입니다.

성인들과 같은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얻고, 기도를 통해 주님을 뵙고, 미사성제를 통해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매일의 삶을 봉헌하면 됩니다. 이로써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신 우리 참 어머니, 원죄 없으신 성모님과 함께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은 당신 가족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어 줄,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을 세우셨네.” (7월 11일 성 베네딕토 아파스 미사 영성체송)

프란치스코 성체 공경의 근본 사상

김성학 사무엘

주님의 몸을 가장 귀하게 모실 것

성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을 취하며, 계속 성체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심을 묵상하기를 좋아하였다. 또한 그는 사람들이 신앙과 사랑의 부족 때문에 성체를 경멸하고 소홀히 다루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에 대한 합당한 존경심을 가지며 주님의 몸을 모시는 것을 말할 때, 다른 문헌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귀중한 장소’(유언 11), ‘값진 성작’(성직자들에게 보내신 편지 10-11), ‘성체포’(보호자 형제들에게 보내신 편지 I 3-5), ‘값진 제대 장식’(보호자 형제들에게 보내신 편지 I 3-5)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그 존경심을 드러냈다.

실제로 그는 성녀 글라라와 그녀의 자매들에게, 너무 가난하여 그런 것들을 마련할 여유가 없는 교회들을 위하여 제대포, 제의, 제대물품 등을 만들 것을 명하였다. 극단적인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제들에게 모든 지역에, 아름답고 깔끔한 성합을 들려 보내길 원했다. 그들은 주님의 몸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관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곳은 어디에서나 그들이 지니고 간 성합

안에 그 성체를 정중하게 모셔야만 했다. (완덕의 거울 65)

또한 종종 그가 제대포를 빨고, 예술적으로 조각된 철판에 제병을 굽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그는 이 철판들을 여러 관구에 보냈고, 따라서 형제들이 아름다운 순백의 제병들을 어디서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는 여행 중에 교회를 발견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빗자루를 들고 하나님의 집을 검소되이 헌신적으로 청소하였다. 그리하여 주님은 거기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예와 공경 중에 머무르실 수 있었다. (완덕의 거울 56)

이와 같이 복되신 성사에 대한 그의 불타는 사랑 앞에서는, 그가 일생을 통하여 신의(信義)를 지키고자 했던 가난에 대한 사랑조차도 길을 내어 주어야 했다. 이는 코르토나 부근의 한 수도원 성당의 다른 모든 것이 완벽한 가난을 보여 주고 있었지만, 감실의 문만은 순금이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그의 성체께 대한 공경심을 알 수 있다.

사실 성당에 감실이 생기기 시작한 것에 프란치스코의 이러한 성체 공경에 대한 신심의 영향이 지대했다. 성인은 당대 교회법상의 규정을 지키도록 “성직자들에게 보내신 편지”와 “보호자 형제들에게 보내신 편지”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이 두 편지에서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는 “성체를 가장 귀한 곳에 보존해야 한다”는 말은 제4차 라테란 공의회 법규에 부합하는 것이며, “성체를 귀중한 곳에 모셔 자물쇠를 채우라”(성직자들에게 보내신 편지 11)는 당부는 13세기에 각 교회 안에 퍼진 성체 보존

을 위한 “감실(Tabernaculum)”의 기원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프란치스코 이전에는 축성된 성체를 장롱이나 혹은 지저분하고 초라한 성당 안에 보존하거나, 아니면 지붕으로부터 끈이나 쇠사슬로 매단 금속으로 된 비둘기 모양의 보관함에 보존했기에 성체가 자주 훼손되었다.

또한 이 편지에서, 환자들에게 모셔가는 ‘노자성체’에 대한 호노리오 교황 3세의 규정을 잘 지킬 것을 권하고 있다. “공경심을 다해 성체를 옮기고 신중히 영해 주어야 합니다.…사제가 성체를 다른 곳으로 모실 때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살아계시고 진실하신 주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영예를 드려야 합니다.”(보호자 형제들에게 보내신 편지 I 4,7) 프란치스코의 이 권고 말씀은 약 20여 년 뒤에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에 ‘성체거동’이라는 전례 예식을 도입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 (Redemptoris Mater)

권정대 베드로

회칙의 구성과 내용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는 3부, 52개의 소(小)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칙의 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주제를 이끄는 구성과 정교함에 확고한 논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론(1-6항)은 회칙 반포의 배경과 상황을 설명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서론에서 그의 교회관을 압축하며, 바티칸 공의회 교회현장의 전통을 따라서 마리아와 교회의 관계를 재확인하였다.

‘충만한 때’를 알아채는 것은 영원이 시간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신비로 채워져 ‘구원의 때’로 전환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며, 마리아가 ‘그대로 이루어지소서’(Fiat)라는 확언을 통하여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한 것은 감추어진 교회의 여정이 그리스도의 강생과 함께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례에서 나자렛의 마리아를 교회의 시작으로 찬미하며(1항),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전통에 따라 역사 안에서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현존을 살아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종말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걷는 교회를 앞장서서 이

끄시는 분으로 공경한다. (2항)

곧, 천주의 모친(Theotokos)이란 칭호에 담긴 마리아의 신비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통해서 밝혀지며, 이 신비 안에서 교회는 자신의 존재와 신비를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4-5항)

더불어 마리아가 신앙의 여정에 있는 이들에게 항구한 기준이 되는 의미와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그 이유는 그분이 낳은 아들이 하느님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이로 삼은 분이고, 마리아가 형제자매들을 기르는데 모성애로 협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6항)

제1부(7-24항)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의 마리아”는 성경에 광범위하게 나타나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조명한다. 또한 복음서의 흐름을 따라서 마리아의 역할을 살펴보고, 신학적 재해석을 통해 그리스도 신비의 구원사적 의미를 알린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분’(7-11항)에서 마리아는 자신을 선택한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당신의 의지를 드리어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도록 도운 분이다.

2. ‘행복하십니다. 믿으신 분!’(12-19항)에서 마리아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하느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아드님의 희생제사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당신을 결합시

키신 분이다.

3. ‘이분이 네 어머니이시다’(20-24항)에서 카나의 예수님이 당신의 때를 시작하도록 매개하신 마리아는 ‘말씀의 강생’ 순간과 ‘교회의 탄생’ 순간의 고유한 일치 안에서 성령의 길을 가르치신 분이다.

복음서는 마리아를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 그리스도의 신비에 결합한 하느님의 백성을 대표하며(루카 1,46-55), 은총을 입으신 처녀로서(루카 1,28) 구원의 약속을 믿고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하느님의 짝이 되신 분이며(루카 1,38), 십자가 위의 아들의 요청으로 교회의 어머니가 되신 분(요한 19,25-27)으로 소개한다. 곧, 교회는 마리아에게서 ‘성령에게서 태어나는’ 길을 배움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부로서 마리아의 현존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다. (24항)

제2부(25-37항) “순례하는 교회의 한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의 어머니”는 지상 교회의 여정에서 하느님 백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마리아의 현존을 설명한다. 특히 마리아에 대한 동방교회의 놀랄만한 증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제2차 니체아 공의회(787년) 1200주년과 고대 러시아인들의 그리스도교 개종 1000년을 기념하며 그리스도교 재일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마리아는 지상에서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로의 표시이기 때문에 교회 일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갈라진 형제들 사이에 일치의 근거가 된다. 또한 교회 일상의 찬가가 된 마리아의 노래(Magnificat)에 비추어 현대의 특정 문제들을 다루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인 사랑을 강조한다.

제3부 “어머니의 중재”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침을 확인하면서 그 문헌을 주의 깊게 다시 읽도록 요청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하고 단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의 단일 중개성을 역설함으로써 갈라진 형제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세밀하고도 명확한 성경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21-23항) 여기서 교황은 마리아의 해 의의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에서 그리스도론적이고 교회론적인 내용 안에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상을 깊게 함으로써(25-28항),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의 일치를 위해 가능한 한 적극적인 발전을 명시했다. (29-34항)

그는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마리아(제1부)”와, “교회의 신비 안에서 마리아(제2부)”를 다루고, 이 두 주제를 제3부 “주님의 여종인 마리아의 모성적 중재”로 결합하여 회칙 전체를 완성한다. 이로써 마리아는 시간 안에 모형(模型, figura)이고, ‘영원한 모델’로 제시되었다. (42항)

결론(51-52항)은 회칙의 내용을 종합하며, 교회가 믿는 이들의 공동체와 함께 선의의 모든 사람과 일치하기를 바라는 희망

을 담고 있다. 그리스도 강생의 신비에 참여한 첫 사람 마리아는 ‘위대한 변화’를 경험한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교회는 현재에도 죄 안에 있는 인간들이 변화하여 은총과 정의 안으로 들어오는 삶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한다. (52항)

이는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영원한 소명 안에 있는 마리아를 따르며 그분의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마리아를 통하여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회칙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노선을 따라 전통적인 교의를 반복하기보다는 마리아의 구세자적 역할, 곧 마리아의 중재 기능과 성모 신심이 교회 일치의 공통 뿌리임을 강조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온 한 인간, 한 여인, 본연의 모습을 갖는 참 인간으로 마리아를 역설한다. 더불어 삼위일체 하느님을 관상하고 중개자인 성자께 종속되는 것임을 거듭 천명함으로써 올바른 기준을 잃지 않고 있다.

“교회는 인류 역사 안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영원히 제정하신 하느님 섭리의 계획에 따라 인간의 영원한 소명 안에 깊이 자리하고 계시는 마리아를 봅니다. 교회는, 오늘날 개인과 가정과 국가를 괴롭히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 어머니로서 함께 계시면서 선과 악의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그리스도교 백성들을 도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구세주의 어머니, 19항)

그러므로 마리아의 믿음, 그리스도의 교회 창설에 “앞선” 마리아, 그리고 동정녀이며 어머니로서의 마리아 등 세 가지의 구분을 엄두에 두고 회칙의 기초를 확인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사상은 각각 따로 구별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또 단순히 서로 관련이 있다고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이 사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결국에는 같은 사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마리아는 절대 기만하는 분이 아니며, 복음적으로 “단순함”을 지니신 “마음이 가난한” 참 행복(眞福八端)의 전형적인 표본이다.

콜베 신부의 기도와 사도직

최문기 마티아

콜베 신부의 영성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기도는 빼놓을 수 없다. 라이문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의 앞날을 예고하는 성모님의 발현을 기도 중에 체험하였고, 생의 마지막 아사 감방 안에서도 사람들과 기도했다. 기도는 그가 받은 가장 큰 카리스마였으며, 그의 생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삶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 시골뜨기 폴란드 소년을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순교자로 성장시킨 것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에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그것을 모두 성공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도 모두 ‘기도’에서 솟아났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가 ‘기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학술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를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편지와 자료들, 삶의 태도를 종합했을 때 기도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가 바친 모든 기도는 성모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치는 기도이며, 찬미와 감사의 기도인 동시에 속죄와 의탁의 기도였다.

기도할 때에 콜베 신부는 마치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아기처럼 단순하고 친근했다. 정형적이고 체계적이기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성적이며, 뜨거운 마음을 우선했다. 그는 모든 신앙인의 기도가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그 기도의 응답인 은총 또한 성모님

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도달한다고 말한다.

콜베 신부는 기도에 프란치스칸의 ‘가난’과 동등한 가치를 부여한다. 프란치스칸의 가난이 ‘하느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 이듯이, 우리가 바치는 모든 기도 또한 그러하다는 것이다. 예수님과 성모님은 늘 인간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고 또 인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현존을 체험하는 이들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에 응답하여야 한다. 우리가 합당한 기도를 바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영’이 필요하며, 이 기도의 영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영혼은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들어 올려지고 비로소 충만한 사랑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도록 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바로 그 은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도움 아래서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준비와 믿음과 가치를 하느님 앞에 드러내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와 사랑과 희망에 다시금 일치합니다.”

콜베 신부의 기도는 단순히 영적인 활동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퍼져 나간다. 성 프란치스코가 ‘기도 그 자체인 사

람'이었던 것처럼, 콜베 역시 삶 전체가 곧 기도였다. 특히 그는 사도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노동을 기도의 차원에서 생각하였으며, 모든 사도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강조한다. 콜베 신부는 사도직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예를 들어 좋은 설교나 단체를 만든다거나 금전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은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 은총에 도달하는 방법은 오로지 기도뿐이라고 이야기한다.

“외적 활동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것들은 2차적 문제입니다. 우리의 내적 삶, 기도, 하느님을 향한 사랑에 비할 것은 아닙니다. 기도 없는 좋은 설교나 활동은 어떤 열매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여라도 사도직 활동은 기도에 우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도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성과는 인간적인 노력이나 능력, 자금 등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것들 역시 하느님의 선물이지만, 최종적인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과 일치하느냐에 오롯이 달려있다. 하느님과의 유대가 미약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느님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완수한다는 것은 나무 막대기에서 포도가 열리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과 성모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도적 노동을 기도하는 자세로 실천할 때, 그것은 사도직 자체 뿐만 아니라 자

신의 덕행을 닦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 특히 모든 사도직이 ‘순명’ 안에서 실천될 때 그 효과는 배가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성모님을 위한 모든 노동은 그 자체로 기도일 수밖에 없으며, 순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실행하는 것은 바로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에 일치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콜베 신부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니에포칼라누프 삶의 세부 규칙, 특히 노동이 강조되는 규칙을 작성했다. 그는 우리의 모든 노동이 ‘일을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오로지 성모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만 그 의미와 가치를 가짐을 명백히 밝혔다.

“우리의 노동은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향하는 사랑의 활동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화하고 나아가 세상 모든 이들의 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열망 아래 우리는 모든 영혼이 성모님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일해야 하며, 마침내 성모님께서서 모두를 지배하게 되셨을 때, 이를 통해서 모든 인간 존재가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콜베 신부는 단언한다.

따라서 성모님의 모범에 따른 순명의 정신으로 사도직을 실천할 때, 그 순명은 인간의 창의력과 진취성을 증가시킨다. 콜베 신부는 완전한 순명의 정신 안에서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미래 지향적인 사도직을 시작하고 정착시켰다. 출판사는 물

론이고 라디오 방송국, 나아가서는 소방서까지,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콜베 신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모님의 뜻’이라고 판단되는 모든 것)을 두려움 없이 시작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사도직은 노동이라기보다는 기도였고,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선을 실행하는 것 그 자체였다.

“믿음을 가지고, 단 1분도 허비하지 말며 일을 닦치는 대로 하지 말고, 오로지 선을 추구하십시오.”

결론적으로 기도와 사도직은 따로 분리되지 않으며 오히려 톱니바퀴와 같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노동이 말 그대로 ‘일을 위한 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노동이 단순히 얼마나 효과적이며 많은 성과를 내었는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얼마나 성모님을 통해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갔는가가 궁극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사도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관념적이고 맹목적인 것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성모님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 사업의 협력자이며, 성모님과 우리가 일치한다는 것은 우리 역시 구원사업의 협력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만 완성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콜베 신부에게 있어서 기도와 노동은 별개의 두 행위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는 일관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폰베틀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
부관구장, 신학원장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실천

-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여정 -

이다한 스테파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 2주년을 맞아 회칙의 가르침과 정신이 가톨릭 교회와 세상 안에 더욱 널리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국제가톨릭기후운동(The Global Catholic Climate Movement)의 사무총장 토마스 인수아(Tomás Insua)의 글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실천 (BRINGING LAUDATO SI' TO LIFE)”을 소개합니다.

<찬미받으소서>를 실천하기 위한 앞으로의 여정

(이러한 우려스러운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글은 기후변화 위에 필요로 하는 신속함과 규모로 <찬미받으소서>를 실천하기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계획과 활동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찬미받으소서>의 반포가 가져온 여세에 힘입어서, 기후 정의를 위한 가톨릭 교회의 조직적인 활동이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앞서 전례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COP21의 협상 당사국들에게 보낸 주교님들의 탄원서, 교황청의 외교 활동, CIDSE와²⁾ 같은 기구들의 활동에서 드러난 가톨릭 지도층의 노력, 그리고 90만명 이상이 서명한 가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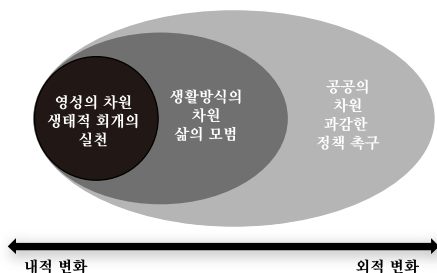
주1) <http://catholicclimatemovement.global/>

주2) 벨기에의 브뤼셀에 본부를 둔, 유럽과 북미의 17개 가톨릭 사회정의 기구들의 연합체 - 역자 주

릭 기후청원을 COP 21 당사국들에게 전달하고 국제 기후 행진에 4만 명 이상의 가톨릭 신자들을 참여케 한 ‘국제가톨릭기후운동(The Global Catholic Climate Movement, 이하 GCCM으로 표기 - 역자 주)’과 같은 평신도 중심의 가톨릭 단체들의 노력을 단합시키면서 파리 회의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2)와 미래에 진행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GCCM에 의해 고안된 전략적 프레임워크는 앞으로의 여정이 지닌 다면적인 특성을 설명하고 몇 가지 촉망되는 사례들과 제안들을 탐구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표 1에 나타나듯이, 이 프레임워크는 가톨릭 공동체가 <찬미받으소서>를 생활화하기 위해 행동으로 동시에 옮겨야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차원들을 보여줍니다. 바로 영성, 생활방식, 그리고 공공의 차원입니다.

도표 1. <찬미받으소서> 생활화의 세 가지 차원



강조되어야 할 점은, 모든 차원이 복잡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중요하며, 작은 본당에서 한 국가의 주교회의, 지역 수도회에서 국제적인 평신도들의 운동, 교구 카리타스에서 교황청에 이르기까지 가톨릭 교회의 모든 제도와 단체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원들 중 어느 하나를 간과한 채 다른 한두 차원 안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동시에 이 차원들이 상호 간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내적인 차원들에서의 변화는 더 많은 외적인 차원들에서의 변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과 내밀한 일치를 느낀다면 냉철함과 배려가 곧바로 샘솟게 될 것입니다”(〈찬미받으소서〉 11항)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덧붙이십니다. “생태적 회개는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창의력을 전개하고 열정을 북돋우게 할 수 있습니다”(〈찬미받으소서〉 220항). 동시에 “공동체 활동은 자기 자신을 내주는 사랑을 표현할 때에 강렬한 영적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찬미받으소서〉 232항). 이 영적 체험이 내외적으로 변화를 촉진합니다. 시급한 것은 그러한 담대한 행동들이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동시에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호에 이어서 계속)

언론(言論)의 의미에서 바라본 디지털 미디어와 가톨릭 신앙인으로서의 나

홍민용 알로이시오

지금까지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과 발전, 디지털 미디어를 중심으로한 사회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 알아보았다. 사실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특히 미디어에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이런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연세가 높은 분들)이 어려워하거나 아예 들어보지도 않고 피한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는 젊은이들만이 공유하는 도구가 아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매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 또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영향과 사용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주고받는 메시지나 SNS에 올라는 한 마디는 다른 이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의식없는 사용은 어느 순간 이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노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앙인으로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할 때는 신앙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적극적인 모습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삶 안에서 신앙을 드러내듯이 가상공간에서도 그러해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은 정보의 공유와 인간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가져왔다. 다시 말해, 이전의 미디어와 달리 디지털 미디어에서는 개인이 정보의 중심에 서있고, 이로 인해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 새로운 관점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이어가면서 식별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필자는 전에 이를 디지털 식별력이라고 불렀다)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어떻게, 어떠한 식별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더욱 고민해봐야 한다.

필자가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신앙인의 첫 번째 사명인 복음 선포를 잊지 말아야 한다. 단순한 재미나 정보공유의 차원을 넘어 복음 선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다. 물론 가상 공간에서의 말과 행동에 책임감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둘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중 하나인 ‘사회 매체에 관한 교령(Inter Mirifica, 놀라운 기술)’에 나오듯이 정의와 사랑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유로운 생각과 의견, 정보의 공유가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과하게 자신의 입장과 생각만을 강조해 분열과 다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보듬어주며 진리와 그에 따른 정의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 마지막 식별력은 디지털 미디어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소통’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사실 필자가 언급한 이 세 가지 디지털 식별력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삶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필요한 것들이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에 있어서 무엇인가 특별히 따로 필요한 신앙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우리가 평소에 중요시하던 그런 모습들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정보 공유와 소통에 똑같이 요구된다.

문제는 현실 세계와 디지털 매체가 만들어가고 있는 가상세계,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공간 속에서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공간을 전혀 별개로 보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두 공간에서의 모습이 서로 괴리를 이루거나 아니면 후자의 공간, 즉 인터넷상에서의 공간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는다.

필자는 지금까지 이 글을 쓰면서 ‘언론(言論)’이라는 단어를 강조해 왔다. 언론은 첫 번째로 “개인이 말이나 글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글”, 두 번째로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과 더불어 언론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신문이나, 티브이 등의 일방적인 정보전달 수단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각 개인 개인이 나의 말이나 글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의 시대에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또한 '언론'의 한 부분으로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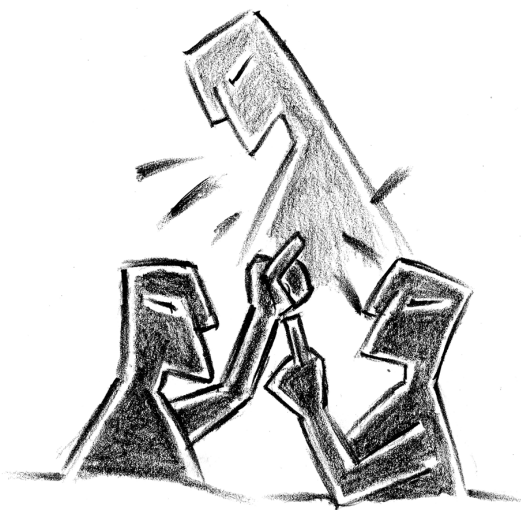
콘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
미국 보스턴 Northeastern University에서 미디어를 전공하고
미디어를 통한 복음선포에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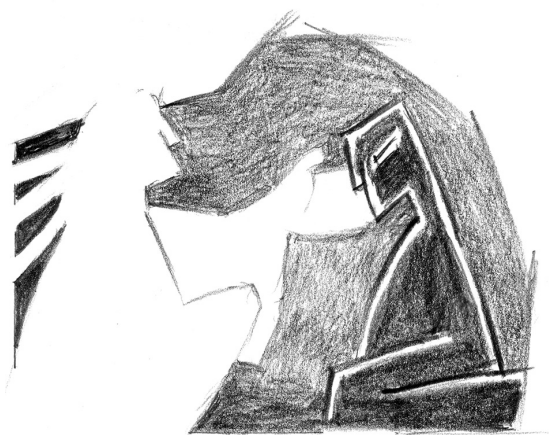
말씀묵상

최창원 니콜라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루카 6,37)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
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마태 6,6)

푸른 꿈

박영철 요셉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시내마다
푸른 물결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봄바람에
꽃바람에
부드러운 고향 바람
불어옵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어릴 때 뛰놀던
푸르름이
일어나옵니다.

지금은 산뜻한
은총을 입고
어릴 적 꿈꾸던
푸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곤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수사

인도에서 수도 생활하기

-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 -

김민석 안젤로

부활절을 지낸 후 곧장 ‘타밀나두 주(Tamil Nadu State)’에 위치한 에이즈 센터(Assisi Snehalaya/HIV/AIDS Care Centre)로 체험을 떠났다. 이번에는 기차가 아닌 콜베 수도원 지프차로 이동했는데, 특별히 Alfred 원장 수사님께서 직접 운전해 주셨다. 6시간 운전 끝에 ‘에이즈 센터’에 도착하자 그곳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모두 나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곳에는 Ferdinand, Titus, Christy 이렇게 세 분의 신부님과 두 분의 수녀님, 그리고 에이즈와 싸우고 있는 서른 두 명의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

Titus 신부님께서서는 친절하게 이곳 ‘에이즈 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상식도 바로 잡아주셨다. 에이즈라는 병은 특별한 경우(의료 사고) 외에는 전염되기 힘들기 때문에 환자들과 함께 생활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하면 위험한 쪽은 오히려 면역력이 약한 에이즈 환자들이라고도 하셨다.

이곳 시간표는 대신학원 공동체인 콜베 수도원만큼이나 딱딱하고 분주했지만, 아이들은 그 일정을 다 소화해내며 열심히 살고 있었다. 아이들의 일과 중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에 약 먹고 식사하기, 학교가기, 숙제 및 공부하기 등이었다. 아이들

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단연 운동시간이었는데, 남학생들은 크리켓과 축구를, 여학생들은 공기놀이, 술래잡기를 좋아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나에게는 복도청소, 간식 나눠주기, 밥 퍼주기, 운동 및 오락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뛰어 놀기, 자습시간에 알파벳 가르쳐 주기, 이곳에서 가장 어린 5살 막내 Jinto 매일 목욕시켜주기 등 다양한 일이 주어졌다.

나는 5살짜리 Jinto와 단짝 친구가 되었다. 아직 학교에 갈 나이가 되지 않아서 다른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가면 매일 혼자 남아있던 차에 내가 왔으니 날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었다. 틈만 나면 팔에 매달려 잡기 놀이를 하자고 조르는데 어찌나 잘 뛰어다니고 또 지치지도 않던지, 그 바람에 나는 매일 저녁 진이다 빠진 상태에서 잠을 청해야 했다. 조그마한 다섯 살짜리 몸에서 어떻게 저런 가공할 힘이 나올 수 있을까? 인도에 와서 본 신기한 것들 중 족히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것이다.

에이즈 센터에서는 환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타밀나두주’ 문화에 관한 이해도 필요했다. 한번은 Jinto가 실수로 뿔 부수어서 수녀님께 꾸지람을 듣게 되었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수녀님께서는 아이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쳤고, 아이는 힘없이 비틀비틀 거리며 땅 바닥에 쓰러졌다. 나도 모르게 수녀님을 향하여 그 행동 당장 멈추라고 소리쳤고, Jinto는 곧장 내 뒤로 숨으며 내 다리에 딱 달라붙었다. 때릴 데도 없는 이 작은 아이를 그렇게 사정없이 때리다니, 수녀님을 이해할 수 없었다.

원장 수사님이신 Ferdinand 신부님께서 ‘타밀나두 주’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이곳은 인도의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아동-학생 체벌이 아주 심한 곳이라고 한다. 그래서 ‘케랄라 주’ 수사님들이 ‘타밀나두 주’에 처음 와서 수도원을 열었을 때 수녀님들이 아이들을 때리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다고 한다. 수녀님 역시 이곳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시기에 배운 대로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도 설명해 주셨다.

때때로 수녀님 두 분이서 많은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시간도 있는데, 그때마다 체벌이 심해지고 언성이 높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덧붙여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이곳 ‘에이즈 센터’에서는 수녀님들이 못다 한 ‘엄마의 역할’을 원장 수사님께서 대신하고 계셨다. 아이들은 수녀님께 혼나면 곧장 원장 수사님께 달려가 징징 대며 이런저런 억울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원장 수사님의 설명을 들은 후에야 마음이 좀 진정되었고, 수녀님의 마음 또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상대방의 마음을 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인도에 와서 느끼게 된다.

주님께서는 아마도 이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날 이 먼 곳까지 부르신 것 같다.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할 때 비로소 보이는 중요한 것들, 하지만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는 것들 말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

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항상 내 방식대로 생각했고 누군가를 향한 사랑과 관심조차도 내 식대로 만 했으니, 내가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음은 당연하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오히려 이해해주시고 내 사과를 웃는 얼굴로 받아주신 수녀님께 감사할 뿐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보통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지만, 에이즈 센터의 아이들은 아니다. 이곳 아이들은 모든 것을 혼자서 해내야 하고 수도원 생활보다도 더 엄격한 규율을 지켜 내야 한다. 때로는 이것들이 어린 마음에 상처와 짐이 되기도 한다. 내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으면 부모님께 사달라고 졸랐다. 아마도 사주실 때까지 울고불고 졸랐던 것 같다.

하지만 이 다섯 살 난 꼬마는 개인 장난감도, 이것을 사달라고 조를 부모님도 없다. 그래서 매일 싸구려 풍선이나 다 떨어진 꼬질꼬질한 인형을 갖고 논다. 이것을 갖고 놀 수 있는 시간조차도 제한되어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만 장난감을 받을 수 있고, 시간이 끝나면 다시 반납해야 한다.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또 꾸지람을 듣는다.

숨 막히고 메말라 보이는 삶의 자리, 정말이지 이 곳 ‘에이즈 센터’의 생활은 이 다섯 살 난 아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Jinto는 씩씩하게 이 삶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누구도 대신 저줄 수 없는 에이즈라는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말이다. ‘외로움’이라는 단어의 뜻조차 제대로 모르는 이 꼬마가 벌써 그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다.

이곳에 사는 아이들은 대개 새벽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매일 복용하는 에이즈 약이 너무 독해서 한밤중에 자주 자지러지는 탓이다. 보통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거나 옆에 있는 물건들을 마구 집어 던지는데, 아이들의 숙소는 허락 없이는 절대 드나들지 못하도록 철창으로 막혀있다. 그렇다면 한밤중에 자지러지는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곁에 있는 친구 아이들 자신이다.

나이 많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아 주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삶이 아이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에이즈라는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강인함’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평범하게 성장한 사람이라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그런 강인함과 인내력이 요구된다.

더운 날씨 때문인지 나는 또 두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병원에 다녀와서 약을 먹고 푹 쉬었지만 좀처럼 낫지 않는다. 타지에 와서 아프니 더 서러운 것 같다. 이렇게 풀이 죽어 골골거리고 있을 때 아이들이 내 방에 찾아와 위로해주었다. 어제처럼 저녁을 또 거르면 약도 소용없으니 밥을 꼭 챙겨먹으라고 아이들이 나를 타이르고 야단친다.

가만 보니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 내가 도움

을 주러 왔는데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다. 그 순간 피어오르는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아이들이 고맙기도 했지만, 참 부끄러웠다. 아이들보다도 약해보이는 내 정신력이 부끄러웠고, 아이들이 내게 주는 위로가 정말 큰 위안이 되어 어느새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그 보다 더 부끄러웠던 것은, ‘내가 어떻게 이 불쌍한 아이들에게 도움은 못 줄망정 오히려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내 생각이 자존심, 교만, 자만, 허영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비뚤어진 내 마음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부끄러워한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사랑을 주고받음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으셨는데, 나는 항상 내 머릿속에 설정해 두었다.

나는 넉넉한 사람,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 그리고 아이들은 부족한 사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일까? 사실 ‘넉넉한 사람’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돕는 그 사람이 바로 ‘넉넉한 사람’인 것이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넉넉한 사람’인 것이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내 안에 정확해 나가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리고 씻어내야 할 얼룩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된다.

아플 때 날 걱정해주고 위로해준 아이들을 통해서 나는 또 하

나를 깨닫게 된다.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격요건도 없음을,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작은 사랑’만 있다면 이 세상 누구라도 도와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언젠가 성녀 테레사의 자서전에서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들의 거창한 행동을 보지 않으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랑만을 보신다.”

—「소화 테레사의 삶과 사랑」중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아무런 계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사랑만을 보시는 것 같다. 내가 넉넉하든 부족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그저 조건 없이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 처음에는 ‘에이즈 센터’라고 해서 분위기가 칙칙하고 어두울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 아이들의 얼굴만 바라봐도 행복해지는 그런 곳이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작은 사랑’을 이곳 아이들이 가슴 속에 한껏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어떤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작은 사랑과 관심이다. 그 작은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열어 보일 수도 있다. 어쩌면 이곳 아이들이야말로 프란치스칸들이 매일 바치는 ‘평화의 기도’에 담긴 참 뜻을 잘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소서.”

겉보기에는 아이들이 수도자들과 많은 은인으로부터 끊임없이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들 안에 작은 신비 하나를 감추어 두셨다. 그들의 약함 안에 감추어진 ‘작은 사랑’이 힘들고 지친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비가 아닐까? ‘평화의 기도’에 담긴 참뜻이 아닐까?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 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 바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인내가 필요한 것이 바로 자신을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내맡기고 의지하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나 허영심, 교만이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데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만약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님께 감사하며 상대방의 도움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 흥가분한 마음으로 내 몸과 마음을 상대에게 전적으로 내맡겨야 한다. 이곳 ‘에이즈 센터’의 아이들처럼 말이다. 그들은 이러한 나눔의 진리, 사랑의 길을 잘 알고 있기에, 그 누구보다도 남을 사랑할 줄도 알고 또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줄도 안다. 나에게 사랑을 나누는 법을 가르쳐준 아이들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은 다른 ‘평화

의 기도’를 바치고 싶다.

“위로할 줄 알면서도 또한 위로받을 줄도 아는 우리가 되길,
이해할 줄 알면서도 또한 이해받을 줄도 아는 우리가 되길,
사랑할 줄 알면서도 또한 사랑받을 줄도 아는 우리가 되길...”

주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들을 주신다. ‘에이즈센터’에서 만난 아이들이 바로 그것이다. 무엇인가 베풀고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선물과 깨달음을 잔뜩 받아간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받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보다. 주님께서 언제 또 이런 보석 같은 선물을 나에게 주실지 모르니,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매일 식사시간에 밥을 퍼주며 마주하는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면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 초롱초롱 맑게 빛나는 그 눈망울 안에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있고, 공동체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있고, 큰 어려움이지만 함께 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작은 의지 또한 들어있다. 그리고 평화와 착함이 있다.

누군가를 돕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함을 가르쳐준 아이들, 내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내가 받아온 사랑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함을 몸소 보여준 아이들,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들을 내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하며 살고 싶다.

이곳을 떠나는 마지막 날에 나는 웃으며 내 선물들에게 인사했다. “다음에 또 봐. 잘 지내고 있어!”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해 주실 거라는 굳은 믿음 안에서, 내일 또 올 것처럼 활기분하게 인사하고 떠났다. 아이들이 내게 준 ‘작은 사랑’만을 안고서…….



5살난 꼬마 Jinto 와 함께

곤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수사

호주 멜버른에 가다

김옥 다윗

멜버른에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성사집전하기를 강요(?)받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와서 보니 현지 사목을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실력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완곡하게 거절할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해서 그냥 “Yes”라고 대답했는지도 모릅니다. 말이라는 게 표현을 잘하지 못하면 무례해 보이기에 긍정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모면하려 했는데, 이것이 고난의 길을 스스로 자초한 듯도 합니다.

그래도 미사는 진행되는 형식과 절차는 같기 때문에 (미사경본을 읽을 줄만 알면) 무난히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고해성사였습니다. 고해성사를 집전할 때면 고해실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내가 죄인이 된 느낌이 들 정도로 부담감이 컸습니다. 저의 이러한 부담감을 신자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제 고해성사는 인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짧게 끝나기 때문이죠. 짧은 영어로 하다 보니 혼화를 몇 문장드리지 못했는데, 오히려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서 더 많은 신자가 저에게 고해성사를 받고 싶어했습니다. 유독 고해성사를 보는 신자가 많던 사순시기의 어느 토요일, 신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제 조금 익숙해졌다고 고해도 오래 듣

고, 훈화도 한 두 문장 더 했더니,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 해서인지 원성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가벼운 인기보다는 무거운 원성을 더 듣고 싶은 요즘입니다.

멜버른에 와서 놀랐던 점은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미사 30분 전에 가면 대부분의 성당에서 고해성사를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주일미사 전에도 고해성사를 주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아침미사 후에 1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드립니다.

물론 미리 성당 사무실에 연락해서 신부님께 예약하면 성사를 볼 수 있지만 고해성사를 볼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는 우리나라보다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몇몇 열심한 신자들을 제외하고는 고해성사를 보는 사람들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주말에 가족행사나 스포츠 이벤트 등이 많기 때문에 주일미사를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해성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물론 저희 한인공동체에는 미사 전에 항상 고해성사를 드립니다.)

이곳 신부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멜버른 사람들의 종교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운동하기를 좋아하고, 여가생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대신 가톨릭 신자로서 주일미사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다소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주일미사를 빠지고, 고해성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지 못한 채 그러한

기회도 잘 얻지 못하다보니 다시 신앙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더
더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멜버른의 문
화는 현대인들이 바라는 삶의 모습일지도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는 하느님과 만나는 순간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냉담 교우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어려워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문화여가생활을 하는 것이 그다
지 큰 죄도 아닌데, 주일미사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해성사
를 봐야한다는 부담감에 한 번 성당과 거리를 두게 되면 다시 돌
아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열심히 신자들에게서 고해성
사를 보기가 두려워서 꼭 주일미사를 참례한다는 말도 많이 듣
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일
미사를 참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주일미사는 우리 신앙의 원천이자 기쁨의 잔치입니다. 하느
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의 통로이자 하느님과 교회 공
동체가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생명의 빵과 구원의 포도주로 하나
되는 축제입니다. 그러기에 주일미사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충
만한 구원의 삶으로 초대받고 성체로 힘을 얻어 세상에서 복음
을 선포하며 힘차게 살아가게 됩니다.

고해성사는 우리의 신앙여정에서 우리 자신의 나약함으로 인
한 어려움을 주님께 의탁하고 용서받아 성체성사를 더욱 충실
히 준비하고 주님과 긴밀히 결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
니다. 고해성사는 심판받는 시간이 아닌 하느님과 화해하는 시

간이며, 세상의 유혹에 시달려 지친 우리 영혼을 주님의 자비로 위로를 받는 치유의 성사입니다.

가톨릭 재단의 초등학교에서 첫 고해성사를 하는 날은 가족들이 모두 모여와서 사제와 인사를 나누고 성사를 하게 됩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진정으로 하느님께 의탁하는 법을 배우는 첫 순간을 모두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것이지요. 순수한 어린이의 영혼이 무슨 큰 죄를 지었을까요? 그러나 하느님을 향해서 자신을 좀 더 봉헌하고 깨끗하고 맑은 영혼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치유의 성사를 제정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겪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매 고해성사 때마다 첫 고해성사 때처럼 계속해서 회개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힘겨워할 때 더욱 옆에서 함께하시길 원하십니다. 속된 세상에서 우리의 힘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제가 고해성사 담당이군요. 제가 혹시 다 알 아듣지 못해도 주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세상 속에서 당신의 인도하심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아멘.

콘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
호주 멜버른 한인성당 주임

베르나노스의 <우리들의 친구, 성인들>

정영란 마리아네스

프랑스의 대표적 가톨릭 작가가 선종 1년 전인 1947년에 튀니지 튀니스에서 ‘샤를르 푸코의 작은 자매회’ 수녀들을 위해 한 강연 원고 일부를 우리말로 옮겨 함께 나누어보고자 한다.

“(…) 어떤 뜻에서 성인들에 대해 말하려는지 먼저 말씀드려야겠군요. 아, 물론 여러분들을 교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 우리는 함께 이 자리에서 성인들에 대해 그저 평상심을 가지고 말해보도록 합시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어른들에 대해 얘기하듯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와는 너무도 먼 듯하면서도 또한 우리와 그토록 가까이 계시는 그분들에 대해 우리가 가지는 느낌을 나눴보도록 합시다. (…)

성덕이란 우리에게 우선 무서우리만큼 어렵게 보입니다. (…)
아이들이 (…) 어른 흥내놀이를 많이 하고 나서는 그들도 차츰 어른이 되어 가지요. 이런 처방이 어찌면 좋은 것이기도 하겠지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성인(聖人) 놀이를 하고 또 하노라면 우리도 어찌면 중국에는 그리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소화 데레사님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하신 듯 보입니다. 그분은 아기 예수님과 더불어 성인 놀이하시면서 당신 자신도 성녀가 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장난감 기

차를 갖고 운전 놀이를 하고 또 하던 어린 소년이 (...) 철도 기관사가 되거나 아니면 역장직(驛長職)이라도 맡게 되곤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

그렇습니다, 우리 성교회도 커다란 운송회사, 천국을 향한 철도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생각해봅니다, 여기에 교통을 관장하는 성인들께서 아니 계시다면 우리는 무슨 꼴을 당하겠는가고... 벌써 이천년 전부터 이 철도국은 꽤나 많은 재난을 겪어왔으니 가장 심각했던 궤도 이탈과 충돌 사고만을 들어보더라도 아리우스파며 네스토리우스파, 펠라기우스파 등의 이단들, 동방 교회 및 루터의 분리..., 등등을 당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종래 성인들이 아니 계셨다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거니와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는 뒤엎어져버린 객차며 불타버린 차량 더미에 지나지 않고 철길은 비에 젖어 못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덮어버린 철로 위로 그 어떤 기차도 벌써 오래 전부터 달리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여하간 제 말에서 교회는 움직임 그 자체, 추진력으로 나아가는 힘이라는 생각만은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 많은 경건한 남녀교우, 신앙인들이 교회란 그저 보호처, 도피성이며 일종의 영적 안식처라고 믿고 있는 것과 달리, 아니 믿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말입니다. 그네들은 소위 이 영적 안식처의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 저 '바깥사람들', 이 안락한 집안에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 더러

은 진창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구경이나 하며 기쁨 어린 자만에 젖어 있는 실정입니다. (...)

창조는 사랑이 이뤄낸 작품입니다. (...)한테 바로 이 우주, 세상에 고통이 있음이 걸림돌이 아니라, 자유가 있음이 바로 걸림돌일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피조물을 자유롭게 하셨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야말로 걸림돌 중의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온갖 나머지 다른 걸림돌은 바로 그 사실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 바로 이 순간, 이 세상 그 어느 곳에, 외로운 어느 성당 구석 자리에, 아니 어느 아무런 집에, 아니 적적인 길 어느 모퉁이에 붙박힌 사내 한 사람이 있어 두 손을 모으며 자기가 무슨 말로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아니 말로는 하지 않고 또 못하면서도 좋으신 하느님께서 자기를 자유로운 인간으로 빚어 주셨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내 주셨음을 감사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느 곳에서는, 어느 이름 모를 곳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뛰지 않게 될 아가의 작은 가슴에 마지막으로 얼굴을 묻은 한 엄마, 하느님께 그 기진맥진한 마지막 호소를 봉헌하며 이제 죽은 아기 곁을 지키는 어머니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씨앗을 흔뿌려 심는 손길처럼 드넓은 우주에 태양계들을 흔뿌려 주신 그 ‘음성’이, 온 세상을 진동하는 그 ‘음성’이 막 그 여자의 귀에 이렇게 부드럽게 속삭여주고 계실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여라, 언젠가는 그대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겠지, 그리고 나에게 감사를 돌리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가 지금 너에게서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용서하는 것이니, 딸아, 용서해다오.” 바로 이런 지경의 사람들, 고통의 무게에 지친 저 부인과 저 가여운 남자는 신비의 한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주 창조의 중심에, 하느님의 비밀 바로 그 한가운데에. (...)

제 믿기로는 저자들의 깨달음은 그들 지성보다 뛰어난 어떤 능력으로 된 것인데, 지성과 전혀 충돌하는 것이 아니면서도 인간의 모든 기능을 동시에 다 모으며 활동하게 하여 그들 인간성의 근본까지를 끌어들이는 저 영혼의 깊고도 저항할 수 없는 도도한 움직임에 의해 그들은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나이와 여인이 그들 운명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겸손히 그들 존재 자체를 받아들인 셈이며 이제 ‘창조’의 신비는 그들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니, 그들은 정작 스스로 미처 알지도 못한 채 그려 보이는 행동을 통해 전인적인 존재의 투여라는 대 모험을 하고 있는 터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로 성인의 말처럼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그들은 성인입니다.

하느님의 집은 사람들의 집이지 사람을 뛰어넘는 초인(超人)들의 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초인들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인들이라고 해서 더 초인인 것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덜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인들은 인간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성인이라 함은 숭고한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분들께 숭고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송고함이 그분들을 필요로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인들은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나오는 식의 영웅이 아닙니다. 어떤 영웅은 인성을 뛰어 넘는 듯한 착각마저 주는데 비하여 성인은 인성을 뛰어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 안아 그 인성이 최선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는 분이시니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성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범, 곧 완벽하게 사람이셨던 <그분>께 가장 가까이 가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단순한 마음으로. 얼마나 소박한가 하면 바로 영웅들을 당혹케 하고, 평범해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안도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웅들만을 위해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 비겁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벗들이 그분을 정작 잊어버려도 그분의 대적자들은 그분을 잊지 않습니다.

(...)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순교자들에게 두려움 없이 죽음의 자리로 이행하는 영광된 길을 친히 열어주신 한편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앞서서 저 죽음 고뇌의 깊은 암묵 속으로 먼저 걸어가 주십니다.(...)

그럼 이제, 이 자리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마치 직조공이 짜 들어가는 피륙 아래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실 꾸러미처럼 내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고 오가는 생각을 우리 함께 나눴으로써 얘기를 맺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에 대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창조된 우주만물 안

에서 인간이 가지는 저 놀라운 존엄에 대해 너무나 불완전한 생각을 갖고 있기에 그러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들은 창조 안에서 가지는 제 고유한 위치에 인간을 위치시키지 않아서 그리 생각하나 봅니다. 그런데 그 자리란 하느님께서 그곳으로 친히 내려오시도록 친히 높여주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점만 보아서도 우리는 하느님 모상으로 그분과 닮게 창조되었습니다. 성인들은 바로 사랑의 천재성을 가진 분입니다. 아, 물론 극소수에 국한된 특권과도 같은, 이를테면 예술가 특유의 천재성과 같은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들은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 존재의 심연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런 물을 솟구치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지요,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신 그런 물을. 그 물은 바로 우리 각자 안에 있습니다. 하늘 아래, 하늘 향해 열린 깊은 저수조처럼. 물론 그 수면은 이런저런 찌꺼기며 부러진 나뭇가지, 낙엽 등등으로 덮여 어질러져 있고, 때로는 죽음의 냄새도 올라오는 그런 물웅덩이겠지요. 그 물 위로는 차갑고 냉혹한 어떤 빛이 빛나고 있으니 그것은 합리적 이성의 빛일 터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탁한 수면 바로 한 끼풀 아래, 금방 물은 또 얼마나 투명하고 신선한지요! 또 그보다 좀 더 깊은 수층, 영혼은 제 본연의 모습 그대로, 더할 나위 없이 깨끗한 물보다도 더 무한히 맑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빛으로서 태초로부터 존재하는 빛이며 창조된 만상을 적시는 빛입니다. 바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신 것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그런 사람들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내면 생명을 채우고 있으니, 신앙은 내적 삶 자체입니다. 바로 그 내적 생명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무식하거나를 떠나 신성, 달리 말해 보편적 사랑과 만날 수 있습니다. 피조된 만물은 바로 마르지 않는 그 사랑이 솟아 오른 결과입니다. 그런데 가위 광란적인 활동욕에 사로잡힌 비인간적인 현대 문명은, 기본전환에 미친 듯 몰입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 현대문명은, 타락된 정신력마저도 가공스럽게 거세되어 가는 현대문명은 바로 이 내적 생명에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성을 이루는 근본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대담 중 나는 여러분께 창조의 걸림돌, 스캔들은 고통이 아니라 자유의 문제라고, 자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愛德)>이 바로 창조의 스캔들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었겠습니다. 즉, 인간 말들이 본연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한다면 나는 <창조>는 <사랑>의 드라마라고 말했을 터입니다. 모랄리스트들은 성덕을 곧잘 사치품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덕은 필요이며 긴급한 요청입니다. 사랑이 이 세상 안에서 완전히 식지 않는 한, 이 세상에 성인들을 꼽을 수 있는 한, 다른 어떤 진리들은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잊혀져도 무관합니다, 잊혀졌다 해도 썰물이 되면 모습을 드러내는, 제자리 지키고 있던 바위처럼 그 진리들도 오늘 다시 드러나기 마련이니깐요. 정녕 <성덕>이, 바로 <성인들>께서, 이 내적 생명력을, 만일 그것이 없다면 온 인류가 완전히 멸망에 이르는 실추로 떨어지고 말 바로 그 내적 생명력을 지키고 계십니다.

사람이 야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한 창궐 중인 전체주의가 불러들이는 질곡이라는, 그 어떤 야만보다 더한 야만의 난폭함에서, 그 위협에서 헤어나기 위해 필요한 힘을 찾을 곳은 정녕 자신의 내적 생명에서입니다. 아, 현금의 시대는 더 이상 성인들의 시대가 아니라고, 성인들의 시간은 지나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법한 세태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디선가 쓴 적이 있듯이 성인들의 시간은 언제나, 영원히 다시 도래합니다.”

전주 30주년 행사

성모기사회 전주지구 설립 30주년을 맞아 5월 6일 전주교구 천호 성지에서 성모마리아 대피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피정에는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전에는 천호성지 순례를 통해 순교자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간을 갖고, 성지 미사를 드렸습니다. 오후에는 곤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월간 성모기사 편집장 윤지영 수사의 영성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모기사회 창설자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성인 유해 공경 예절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한 콜베 성인을 본받아 성모님의 충실한 자녀로서 세상의 악과 싸우는 성모기사회원들이 되겠다”고 굳센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결심이 변치 않도록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통한 하느님 은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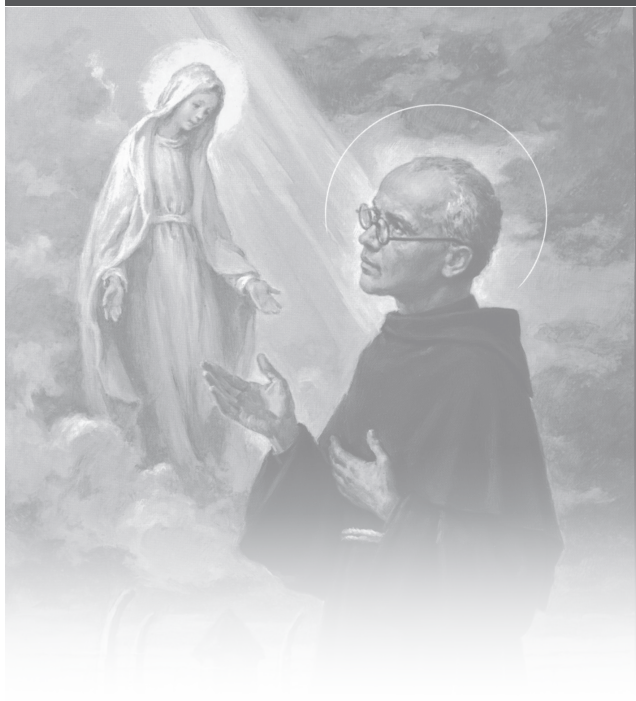
하계 수련회

성모기사회 ‘작은 꽃 하계 수련회’에
젊은이들을 초대합니다.



- 일 시 : 8월 25 ~ 27일(금요일-주일)
- 장 소 : 부산 일광 삼덕 수도원
- 참가 신청 및 문의 : 박상규 야고보 신부
010-5380-8615

성모기사회 창설 100주년 ‘콜베의 밤’



부산지역 (일광 삼덕 수도원)	8월 12일 (토) 저녁 7시	051-721-4709
경인지역 (양평 콜베 마을)	8월 14일 (월) 저녁 7시	031-771-6134
대구지역 (프란치스카눔)	8월 14일 (월) 저녁 7시	053-636-7427

성소후원회

성소(聖召), 거룩한 부르심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업을 위해 부르시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특별히 수도성소는 순명, 청빈, 정결의 복음적 권고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형제들의 회칙과 생활은 순종 안에, 소유 없이, 정결 안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회칙 1장)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모든 수도 회원들은 순명, 청빈, 정결의 복음적 권고 안에서 사부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수도회의 수도자 양성과 교육을 위해 도움을 주실 ‘영적인 친구’를 우리는 ‘프란치스코의 벗’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벗’이 되어 주십시오.

● 성소모임 안내

담 당 : 홍민용 알로이시오 신부

대 상 : 중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 미혼남성

남부 모임 / 대 구 : 월배 수도원

053) 636-7427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4시)

북부 모임 / 서 울 : 한남동 프란치스코 수도원

02) 793-2070 (매월 둘째 주일 오후 2시)

프란치스코의 벗 미사

은인들과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감사와 나눔의 시간입니다.

- 대 상 : 성소후원회원, 해외선교후원회원, 성모기사회원
재속프란치스코회원, 일반 신자
- 내 용 : 미사 전 칠락묵주기도와 고해성사
미사 중 프란치스코 영성 강좌 및 양형영성체
미사 후 성인유해 축복 또는 안수기도

● 미사 안내

지 역	장 소	시 간	월모임	전 화
대 구	월 배 성당	오후 7:30	둘째 화	053-636-1302
부 산	대연동 성당	오전 10:30	둘째 수	051-622-0635
	기 장 성당	오후 7:30	둘째 목	051-721-2273
서 울	한남동 수도원	오전 10:30	셋째 월	02-793-2070
인 천	갈산동 성당	오전 10:00	셋째 토	032-513-4601

※ 상황에 따라 후원회 미사 일정이 바뀔 수 있으니,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은 미사 날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 계좌 안내

예 금 주 : 곧베평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계좌번호 : 신한 140-002-932457 / 국민 026-01-0344-810

지 로 : 7620247

해외 선교 후원회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사라센인들과 다른 비신자들 가운데로 가기 원하는 형제들은 관구 봉사자들에게 갈 허가를 청할 것입니다.” (회칙 12장)

성 프란치스코의 회칙에 따라 곧베틀알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 선교사를 파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를 위한 수도회의 역할과 사명에 함께하실 벗을 기다립니다.

● 후원 계좌 안내

예 금 주 : (재)천주교 곧베틀알 성프란치스코수도회

신한은행 : 140-009-830476

농 협 : 301-0116-9633-21

국민은행 : 295401-01-183491



새 주소(도로명주소)로 바뀐 후 기사지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사지를 받지 못하신 경우

사무실에 도로명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 주소는 집에 오는 다른 우편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금을 자동이체로 신청해 주세요.

1) 은행에서 후원금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하기

거래하시는 은행 방문 → 후원금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

→ 사무실 전화 (자동이체 신청 알림)

2) CMS 자동이체 신청하기

사무실 전화 (031-771-6134) → 자동이체 신청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회기 크게 성장한 북방 선교 후원회는 수도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총본부의 권고에 따라 한층 더 큰 역할을 맡게 되
어 해외 선교 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성모기사회 미사 · 월모임 안내

지 역	월 모 임	시 간	장 소	연 락
대 구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프란치스카눔(월배 수도원 뒤)	053-636-7427
	셋째 토요일	오후 7:00	프란치스카눔(작은 꽃모임)	
	넷째 주일	오후 2:00	월배 수도원(7080 젊은이 모임)	
대 전	둘째 토요일	오전 10:00	대흥동 성당 (1층 경당)	042-256-6562
부 산	첫째 토요일	오전 11:00	대연동 성당	051-622-0635
		오전 10:30	일광 삼덕 공소	051-721-4709
	첫째 주일	오후 12:00	대연동 성당(작은 꽃모임)	051-622-0656
부 천	셋째 토요일	오전 10:00	중1동 성당	032-325-0342
서 울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한남동 수도원	02-793-2070
수원·안양	넷째 토요일	오전 10:00	매교동 성당	031-233-7185
양 평	첫째 토요일	오전 11:00	양평 수도원	031-771-6134
인 천	첫째 토요일	오전 10:00	갈산동 성당	032-513-4601
전 주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효자동 성당	063-223-3821
		오후 7:00	효자동 성당(작은 꽃모임)	
제 주	첫째 주일	오후 12:00	광양 성당	064-753-4498
	첫째 토요일	오후 5:30	동문 성당	064-757-8866
미 국	첫째 토요일	오전 10:00	토랜스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	1-310-380-4647
호 주	둘째 화요일	오전 11:30	멜버른 한인성당	61-422-673-889

※고해성사 및 묵주기도는 미사 30분 전부터 있습니다.

● 후원금 안내

이 책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지는 순수 종교 잡지입니다. 학교, 병원, 회사, 복지 시설 등으로 무료 배포되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모든 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한 미사와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지로번호

7529076

● 자동이체 할 때 (사무실로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이태영) 059-21-0614-385

농협 (이태영) 150017-51-045351

농협 (천주교프란치스코수도회)

317-0007-3146-21

우체국 (천주교프란치스코수도회)

102566-01-005494

● 해외에서 송금할 때

Bank Name(은행명) : Woori Bank

Address(주소) : Seoul Korea

Account(계좌번호) : 702-08-193616

Beneficiary(수취인) : Park Young Cheol

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성모기사

등록번호 : 경기 라 00521

2017년 7월 통권 486호

발행인 : 정진철

편집인 : 구원모

편집장 : 윤지영

편집위원 : 이상태, 이유리, 한규희, 황재민

편집 : 기획 - 김영태, 안준옥

사진 - 이신형

인쇄 : 명 조

발행처 : 재단법인 곧베틀알 프란치스코회
콜베마을(성모기사회)
양평군 서종면 중미산로 136
(우 : 12503)

전화 : 031-771-6134 (사무실)

팩스 : 031-771-2762

홈페이지 : www.ikolbe.com

전자우편 : mikorea@catholic.or.kr

“하늘과 땅아,
영광스러운 그분을 찬미하여라.”
(시간경마다 바치는 찬미 7)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회
“마리아처럼,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와 함께”